

BI-BLE

vol.8

Tech bulletin

2021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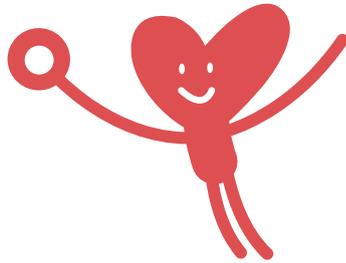
소동물 심장질환과 관련한
영양학 이야기

2021 반려견의 건강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두근두근 심장병 토크콘서트”와
“원주 누리 박종인 원장님 인터뷰”





HEART CHECK



Dog Heart Health Campaign with
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Cardiology and VetMedin

Editorial

이번 호는 '2021 하트체크 캠페인'와 함께 발간이 됩니다. 하트체크 캠페인이 수의사와 보호자에게 심장병의 인지도를 높이는 캠페인인 만큼 이번 호를 크게 관통하는 주제는 '수의사와 보호자의 심장병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도 보호자의 치료에 관한 만족도를 결정짓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는 진단과 치료 외에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은 영양관리를 학술 주제로 담고, 주로 심장병에 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보호자 대상의 리서치 결과인 '2021 반려견의 건강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보호자 대상 웨비나 결과 그리고 웨비나를 같이 진행하신 원주 누리 종합동물병원의 박종인 원장님의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이 관련한 주제들인데 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바이블 표지 사진 사용을 허락해 주신 '두근두근 심장병 라이브 토크 (보호자 대상 웨비나)' 팀인 김성수 원장님, 박종인 원장님, 설채현 원장님, 조우재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조우재 박사님과 박종인 원장님께는 탁월한 강의와 함께 좋은 글까지 함께 기고를 해 주셔서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곧 2021년이 다 지나가네요. 독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일 많이 이루시길 바라며 한국수의심장협외와 함께하는 반려견 공익성 심장건강 캠페인 '2021 하트체크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BI-BLE

2021 Vol. 08

Editor in chief

Dokyoung Lim

Special Thanks to

All BIAH members

Contents

소동물 심장질환과 관련한 영양학 이야기	1
2021 반려견의 건강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4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10
“두근두근 심장병 토크콘서트”와 “원주 누리 박종인 원장님 인터뷰”	

소동물 심장질환과 관련한 영양학 이야기

심장질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 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심장질환에 저염식이 필요하단, 필요하지 않단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보호자들이 영양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트륨의 함량에 대한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는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양학적 해법인 처방식의 원리와 나트륨 함량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사료 포장지의 영양 성분표에 나오지는 않지만 먹거리를 제조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함량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함량을 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에게 필요한 나트륨의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의영양연구소 조우재 연구소장

AAFCO와 FEDIAF는 개와 고양이에서 필요한 최소 나트륨의 함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의 최소 요구량은 성견 시 DM 기준으로 0.1% 이상이며 자견과 임신견의 경우는 0.22% 이상입니다. (아래 표 1, 표 2참조) 일반적인 성견 기준으로 0.1% 이상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상업용 사료의 나트륨 함량은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지만 0.2%~0.7% 정도이며, 음수량을 올리고자 만든 결석용 처방식의 경우 1.1%~1.3% 정도입니다. 처방식에서만 보자면 심장질환 처방식과 결석질환용 처방식의 나트륨 함량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석 질환 처방식을 줄 때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지 않게끔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보호자들이 사료가 짜지 않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utrient	UNIT	Minimum Recommended				Maximum (L) = EU legal limit (N) = nutritional
		Adult - based on MER of		Early Growth (< 14 weeks) & Reproduction	Late Growth (≥ 14 weeks)	
		95 kcal/kg ^{0.75}	110 kcal/kg ^{0.75}			
Minerals						
Calcium*	g	0.58	0.50	1.00	0.80 ^a 1.00 ^b	Adult: 2.50 (N) Early growth: 1.60 (N) Late growth: 1.80 (N)
Phosphorus	g	0.46	0.40	0.90	0.70	Adult: 1.60 (N)
Ca / P ratio		1 / 1				Adult: 2/1 (N) Early growth & reprod: 1.6/1 (N) Late growth: 1.8/1 ^a (N) or 1.6/1 ^b (N)
Potassium	g	0.58	0.50	0.44	0.44	-
Sodium*	g	0.12	0.10	0.22	0.22	c
Chloride	g	0.17	0.15	0.33	0.33	c
Magnesium	g	0.08	0.07	0.04	0.04	-

Figure 1 2020 FEDIAF DOG recommended nutrient (Unnit per 100g DM)

Nutrient	UNIT	Minimum Recommended				Maximum	
		Adult - based on MER of		Early Growth (< 14 weeks) & Reproduction	Late Growth (≥ 14 weeks)	(L) = EU legal limit (given only on DM basis, see table III-3) (N) = nutritional	
		95 kcal/kg ^{0.75}	110 kcal/kg ^{0.75}				
Calcium*	g	1.45	1.25	2.50	2.00 ^a 2.50 ^b	Adult: 6.25 (N) Early growth: 4.00 (N) Late growth: 4.50 (N)	
Phosphorus	g	1.16	1.00	2.25	1.75	Adult: 4.00 (N)	
Ca / P ratio		1 / 1				Adult: 2/1 (N) Early growth & reprod: 1.6/1 (N) Late growth: 1.8/1 ^a (N) or 1.6/1 ^b (N)	
Potassium	g	1.45	1.25	1.10	1.10	-	
Sodium*	g	0.29	0.25	0.55	0.55	c	
Chloride	g	0.43	0.38	0.83	0.83	c	
Magnesium	g	0.20	0.18	0.10	0.10	-	

Figure 2 2020 FEDIAF DOG recommended nutrient (unit per 100kcal)

DM기준과 As Fed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몇%야?, 지방이 몇%야? 라고 물으면 사료 포장지 뒷면에 있는 단백질을 보고 답을 하게 됩니다. 사료 포장지에 명시된 단백질은 As Fed (수분 포함)입니다. 그러나 영양학적으로 함량을 비교할 때는 수분을 빼고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기준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DM 기준(Dry matter, 건물)입니다. DM은 말 그대로 수분이 없을 때 영양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DM 기준을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DM\ 기준 = \frac{\text{영양소 함량}}{(100 - \text{수분})}$$

예를 들면 단백질이 30%이고 수분이 10%인 건사료와 단백질이 7%이고 수분이 80%인 습식사료에서 각각 DM기준으로 단백질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t{건사료} = \frac{30}{(100-10)} = 33.3\%$$



$$\text{습식사료} = \frac{7}{(100-80)} = 35\%$$

보는 바와 같이 DM기준으로 바꾸면 30% 단백질의 건사료보다 7% 단백질의 습식사료가 건물기준으로 단백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습식사료가 단백질이 한자리 숫자이지만 건물기준으로 바꾸면 약 3.5~4배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처방식에서 영양소 함량을 이야기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바로 DM 기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나트륨 함량의 경우도 DM 기준으로 성견시 0.1% 이상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습식사료인데 수분이 80%이고 나트륨 함량이 0.6%인 경우라면 DM기준으로는 3.0%가 되어서 심장질환에는 맞지 않는 고염식이 될 것입니다. 심장질환에서 나트륨제한을 이야기할 때는 DM기준으로도 봐야 하지만 총 섭취한 나트륨의 함량을 봐야 하기 때문에 100 kcal당 (혹은 1,000 kcal당) 나트륨의 함량을 보기도 합니다.

DM은 100g당 확인한다면 100kcal당은 총급여한 양에 대한 함량을 알 수 있어 좀더 미세하게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표2 100kcal당 나트륨 섭취량)

Table1. Comparison of selected nutrients in low sodium and moderate sodium diets.

	Low Sodium (g / 100kcal)	Moderate Sodium (g / 100kcal)
Protein	3.88	4.85
Fat	7.65	7.75
Sodium	0.04	0.07
Chloride	0.05	0.08
Potassium	0.22	0.27
Magnesium	0.01	0.01
Calcium	0.27	0.27
Phosphorus	0.15	0.15
Energy (kcal/100g)	182.9	155.0

Figure 3 심장질환에서 저염식 나트륨 섭취 100kcal당

위 표에서 저염식이 0.04g/100kcal로 표기되었다면 체중 5kg 성견의 DER=440kcal로 가정할 때 하루에 섭취하는 총 나트륨 수치는 0.176g 이 됩니다. ACVIM에서의 논문에는 NTHA 기준 Class II 대상 (ACVIM Stage B2) 실험에서 0.04/100kcal 나트륨 함량인 경우 0.07/100kcal인 경우보다 심장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장질환 처방식의 나트륨 함량은 DM 기준으로 0.1%/kg 이고 칼로리 기준으로는 0.4/1000kcal 보다 아래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 심장질환의 경우처럼 초기의 심장질환에서는 따로 저염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의 심장질환에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오히려 알도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며 초기 단계에서 심장 지표들의 개선과 나트륨 함량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ACVN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Nutrition)의 저자들은 Stage A에서 1g/1000kcal 이하를 권고합니다.

심장처방식은 나트륨 함량 제한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심장 처방식은 나트륨 함량 제한 이외에도 심장질환을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 영양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을 활용하는데, **아르기닌(arginine)과 타우린(taurine) 그리고 카르니틴(L-carnitine)입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사료 포물라를 할 때 라이신(Lysine)과의 비율을 따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심장질환에서는 아르기닌이 흡수되었을 때 체내에서 NO(Nitric Oxide)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NO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타우린은 심장이 뛰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카르니틴 역시 세포내에서 지방산을 끌어들이어 에너지를 만드는 촉매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심장질환 보조제에 약방의 감포처럼 들어가는 것이 타우린과 카르니틴과 같은 아미노산입니다. 카르니틴의 경우 지방산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만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내과질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산화제(Antioxidant)의 함량을 일반식보다 올려놓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로는 비타민C, 비타민E, 타우린, 루테인 등이고 요즘에는 클라보노이드, 제아탄틴,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등의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된 보조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비만이 동시에 있을 때 살을 빼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만을 예방하고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질환에서는 각 단계에 따라서 목표 BCS를 제시합니다. 건강한 개체와 무증상 환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목표 BCS를 4~5/9로 맞추고 CHF에서는 목표 BCS를 약간 상향하여 6~7/9로 맞춥니다. 다만 비만 자체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BCS 8/9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을 때 심각하게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별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짧게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양소 함량과 나트륨 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호자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eference: 1. 2020 FEDIAF Dog & Cat nutrition guideline 2. Clinical, Echocardiographic, and Neurohormonal effect of a Sodium-Restricted Diet in Dogs with Heart Failure 2008, ACVIM 3. Effect of Dietary Modification in Dogs with Early Chronic Valvular Disease 2008, ACVIM 4.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2016

2021 반려견의 건강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베링거 인겔하임에서는 2021년 하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반려견의 건강(특히 심장) 및 동물병원에 관한 보호자의 전반적인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 전문 리서치 업체인 '오픈 서베이'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어떠한 건강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심장 건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전국 반려견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전반적인 건강(특히 심장) 및 동물병원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조사 설계

조사 방법	모바일 리서치 (오픈 서베이 패널 중,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버레이로 응답을 수집)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대상	스크리닝 설문 조사를 통해 실제 반려견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59세의 성인 남녀
응답 표본 수	1,000
조사 기간	2021년 9월 7일
표본 오차	±3.10% p (95% 신뢰수준) ±2.03% p (80% 신뢰수준)

조사 요약

항목	항목	세부 질문	리서치 결과
반려견 건강 정보 탐색 행태 파악	대부분의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건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관절, 치아 및 피부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건강 정보를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 포털 검색 및 유튜브에서도 함께 건강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 양육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과 건강 관심 분야	반려견 보호자 중 압도적으로 75.7%가 반려견의 건강에 대해 가장 고민이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산책(53.3%), 교육 및 훈련(4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분야 중에서는 관절(50.3%)에 가장 관심이 높았고, 치아 및 피부가 43%, 심장에 관한 관심도는 20.8%로 나타났습니다.
		양육 시 '건강 정보' 습득 채널	건강 정보를 동물병원(60.2%)에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포털 검색(56.3%) 및 유튜브 채널 시청(51.5%)이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채널도 동물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병원 내 보호자의 '건강 정보' 습득 채널	응답자의 대부분(96.8%)이 수의사에 건강문제를 물어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수의 테크니션(37.8%)이었습니다. 판촉물(20.1%), 브로셔/리플렛(15.3%), 포스터(14.2%)도 있었습니다.
	 심장 건강에 관한 관심도 : 20.8%		

항목	항목	세부 질문	리서치 결과
반려견 병원 이용 형태	반려견 보호자들은 평균 동물병원을 분기에 1~2회 정도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원 이유는 피부 질병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보호자들이 정기 검진을 하는 것으로 대답했으며, 대부분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사입니다.  심장 질병으로 내원 : 16.4%	최근 1년 내 동물병원 방문 빈도 및 목적	1년에 동물병원을 방문한 횟수는 분기당 4회 이상 6회 미만 (29.3%)으로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6회 이상 12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으로 답한 사람이 25.4%로 동일했습니다.
		치료 시 병명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피부 질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56.2%), 그다음으로는 소화기 질병(39.1%), 눈 질병(33.2%), 관절 질병(29.9%)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질병으로 내원한 보호자는 16.4%를 차지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유무, 종류 확인	65.5%의 반려견 보호자가 정기 검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1회 하는 비율이 그중의 반(32.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 검진의 항목은 76.8%의 보호자가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사라고 대답했으며, 혈액 검사(47.2%), 치아 검진(42.1%)도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견 심장병 관련 인식	대다수의 보호자가 심장병과 무증상 심장병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검진으로 심장병을 진단받기보다는 증상을 보인 이후, 진단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증상 심장병에 관해 잘 모름 : 95%	반려견 심장병 인지도 및 심장병 유무	90%의 보호자가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대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1%)
		심장병 인지 경로	응답자의 10.2%의 응답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앓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42.2%의 응답자가 반려견이 증상을 보인 후,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증상 심장병 인지도	무증상 심장병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71.1%)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캠페인 반려견 무증상 심장병 관련 정보를 본 후	많은 보호자들이 무증상 심장병 콘텐츠에 많은 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보호자들은 콘텐츠 노출 이후 정기검진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콘텐츠 노출 후 정기 검진 의향 : 69%	관련 정보 중 가장 공감이 되었던 정보	무증상 심장병 관련 콘텐츠 중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심장병일 수 있다는 것 이라는 내용에 가장 공감이 되었다고 대답하였으며(69.3%), 그 다음으로는 조기 발견 시 심부전 발생 시기를 60% 지연시킬 수 있다 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9%)
		향후 정기검진 의향	69%의 응답자들이 캠페인 콘텐츠를 보고 정기검진의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정기검진 의향 없다면 그 이유	캠페인 콘텐츠를 본 후, 정기검진의 의향이 없다고 답한 31%의 응답자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53.9%)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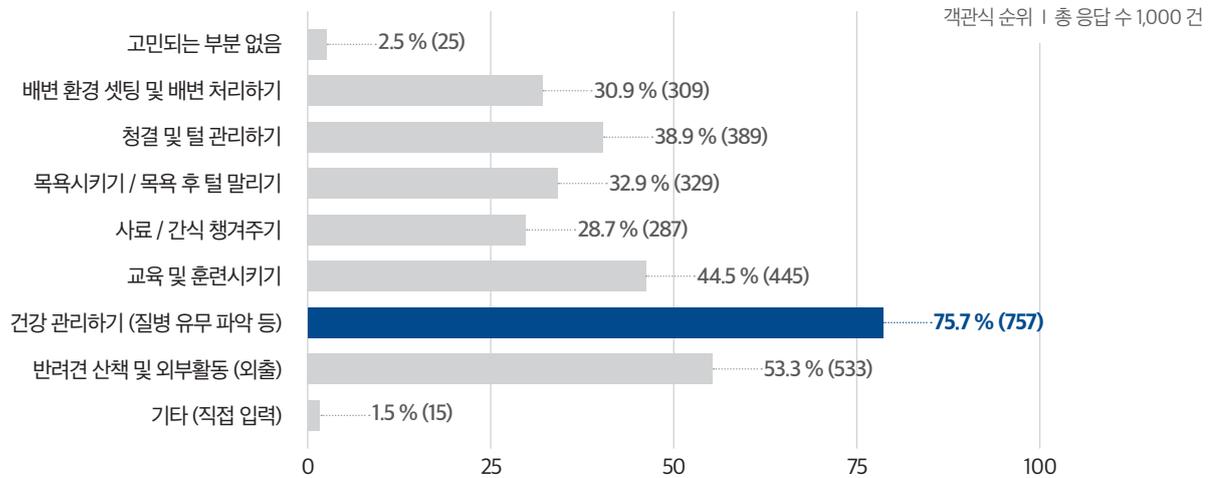
반려견 보호자들의 심장병에 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며, 과반수가 B2단계보다는 CHF 단계에서 진단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B2 단계에서의 컴플라이언스율이 낮은 원인은 심장병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심장병과 정기검진에 관한 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의 베티메딘은 보호자들이 '무증상 심장병'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지않은 보호자가 검진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점에 착안하여 '정기검진(청진)'을 '무증상 심장병'에 효과적으로 결합한 콘텐츠 및 리플렛 등을 생산하여 보호자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 동물병원 외 SNS, 유튜브 채널 등 효율적인 media에서의 공익캠페인인 "하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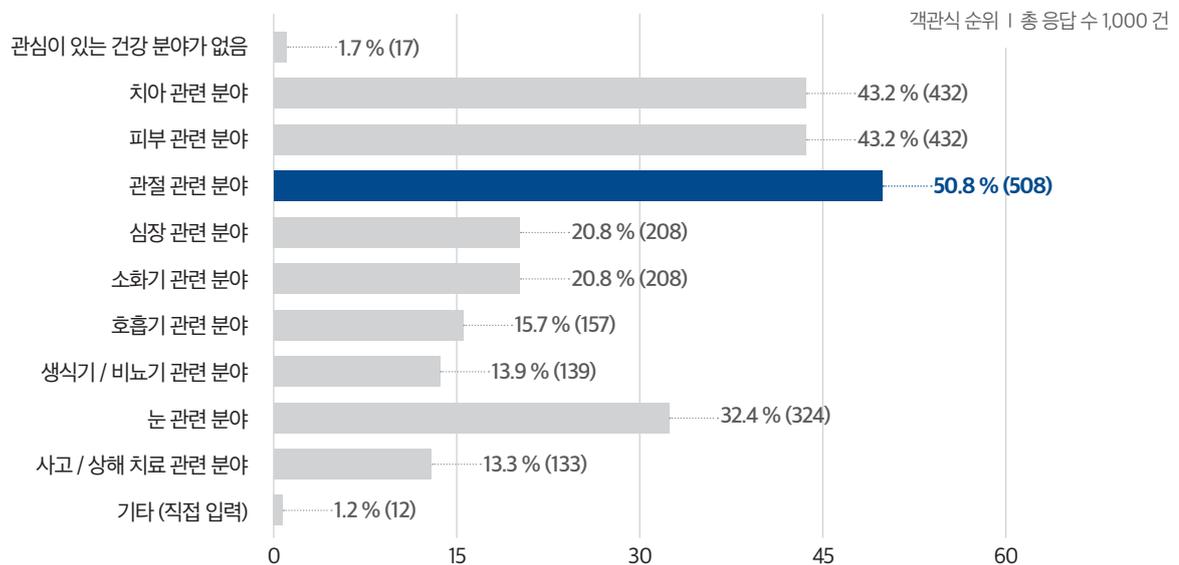
병원에서도 "하트체크 캠페인"에서 제공한 '하트박스'로 보호자와 '하트체크'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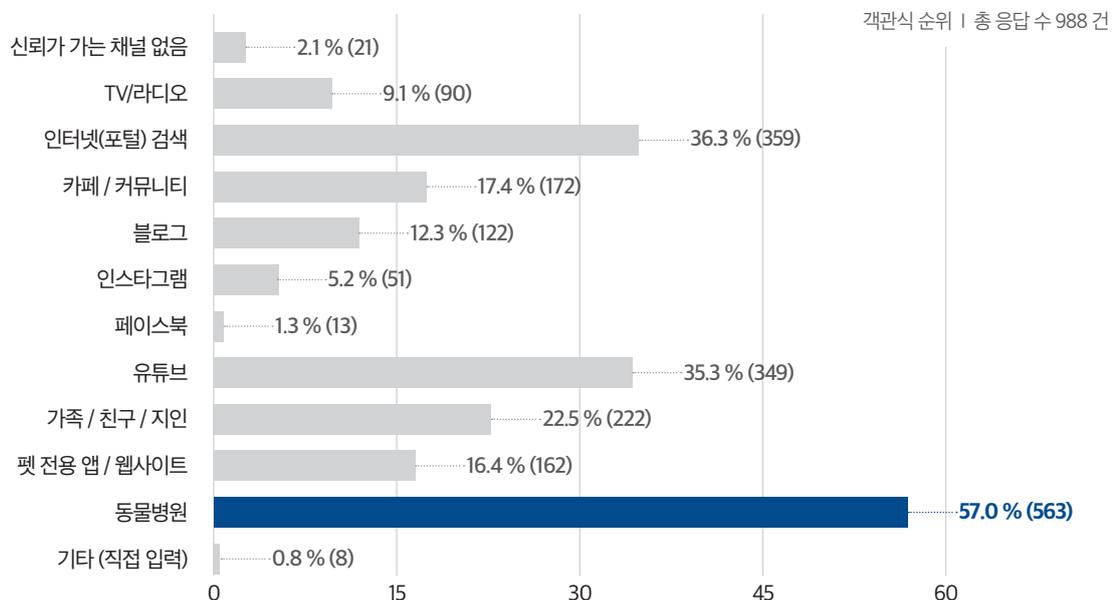
Q1. 현재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고민되시거나 걱정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Q2. 현재 강아지의 건강 중 관심이 있으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으신 순서대로 최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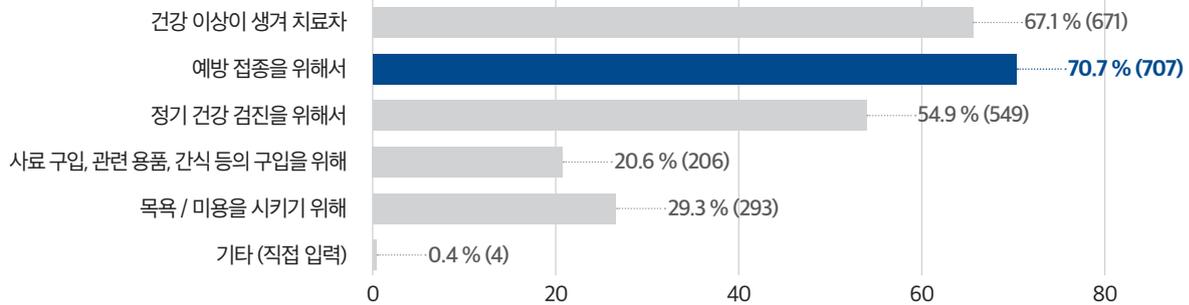


Q3. 반려견 건강 관련 정보 습득 시 신뢰가 가는 채널은 무엇인지 신뢰가 가는 순서대로 최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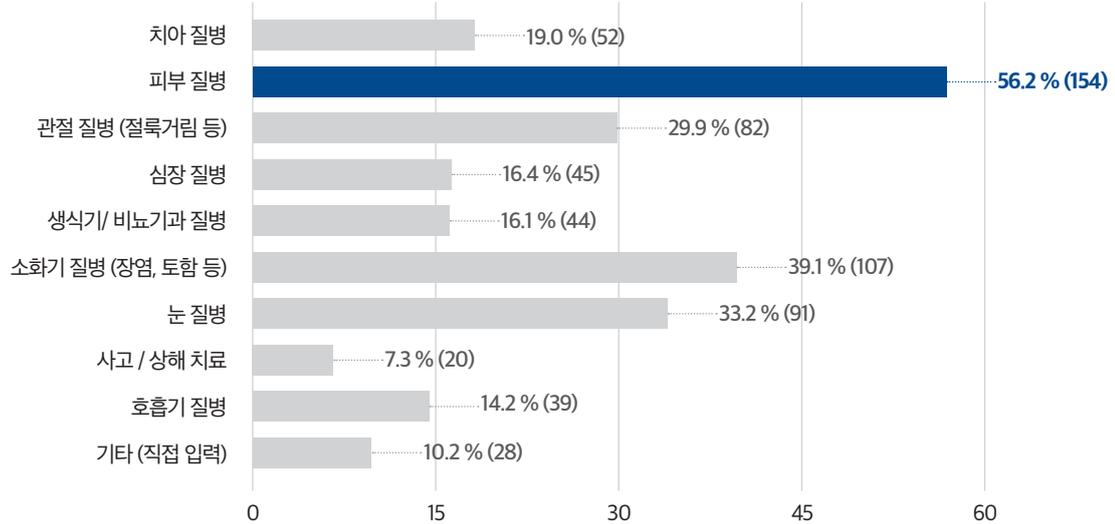
Q4. 귀하께서 평소에 강아지와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객관식 중복 | 총 응답 수 1,00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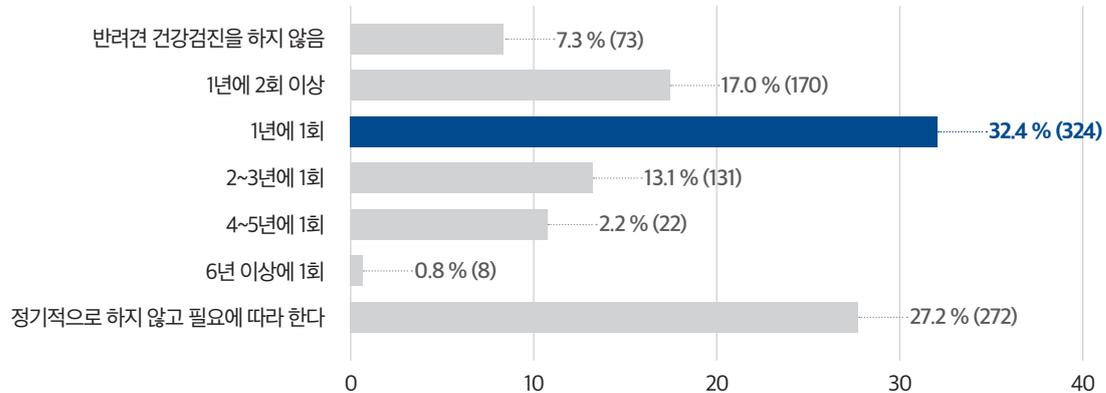
Q5.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가?

객관식 중복 | 총 응답 수 27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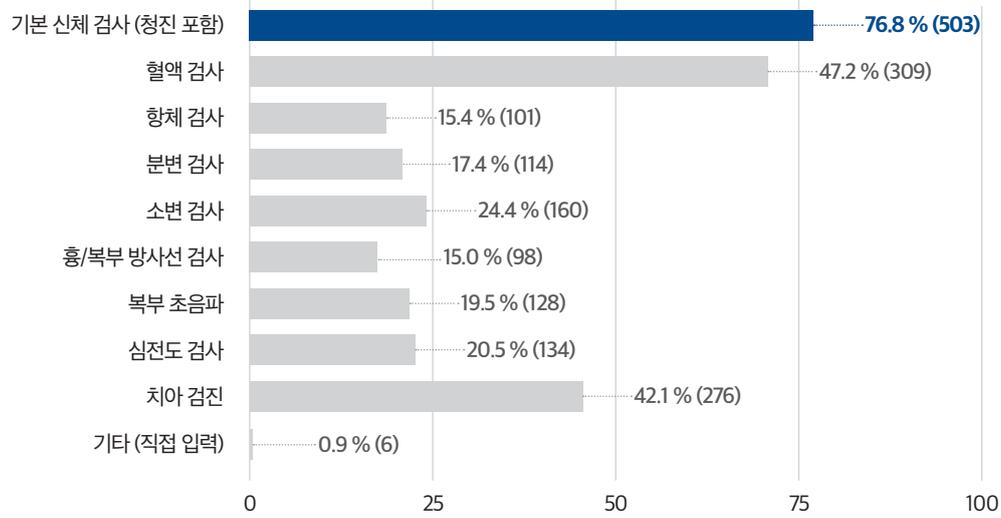
Q6. 반려견 건강 검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객관식 단일 | 총 응답 수 1,00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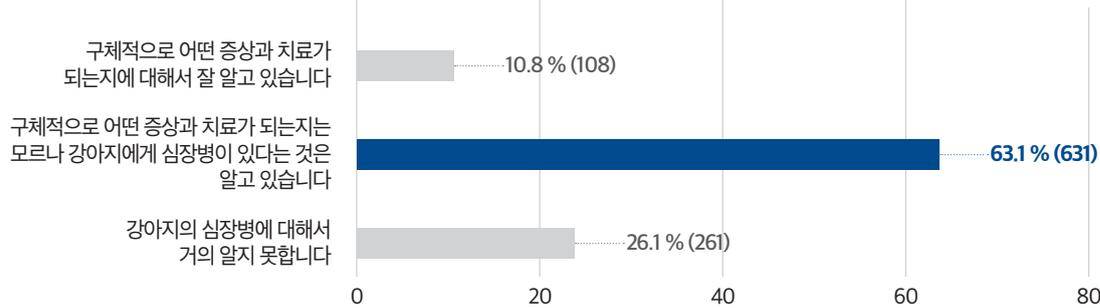
Q7.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반려견 건강 검진은 무엇입니까?

객관식 중복 | 총 응답 수 655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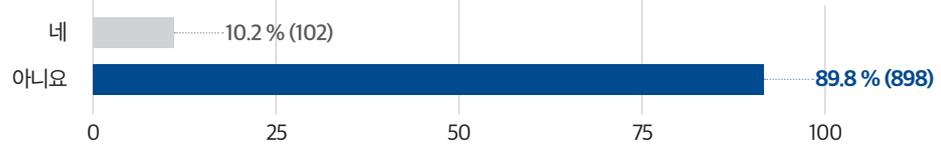
Q8. 반려견의 심장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객관식 단일 | 총 응답 수 1,00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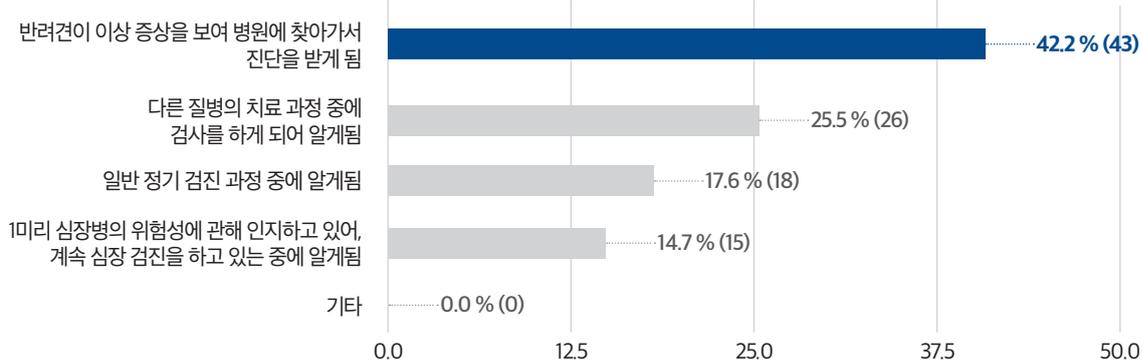
Q9. 귀하께서 현재 기르고 계시는 반려견이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객관식 단일 | 총 응답 수 1,00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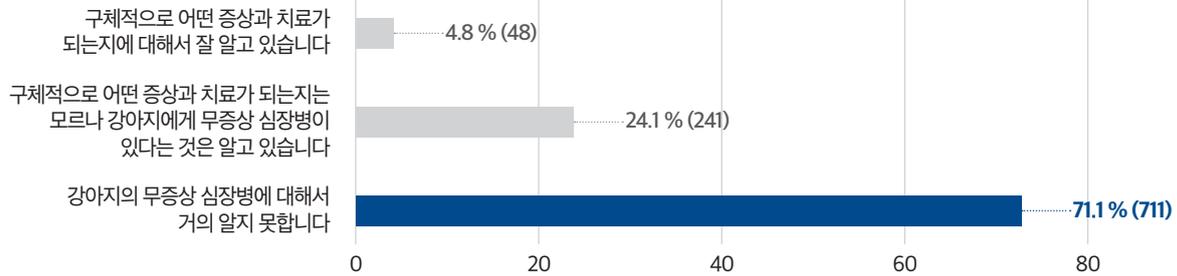
Q10. 반려견의 심장병은 최초에 어떻게 확인하게 되셨나요?

객관식 단일 | 총 응답 수 102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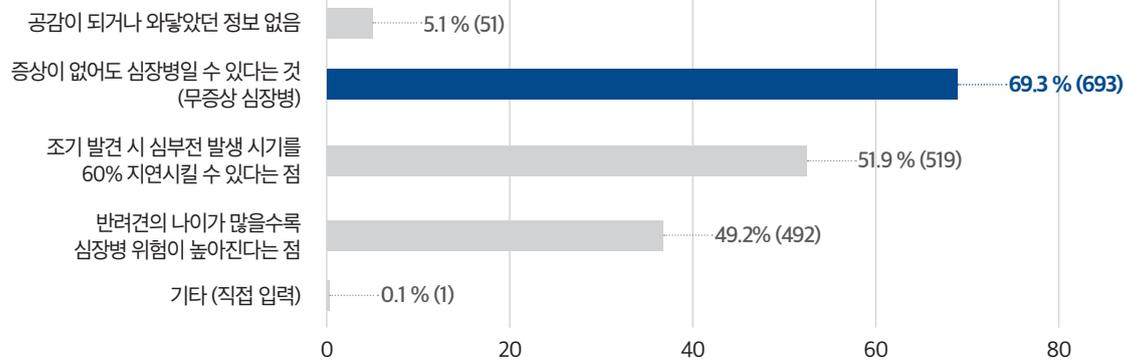
Q11. 귀하께서는 반려견의 '무증상 심장병'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객관식 단일 | 총 응답 수 1,00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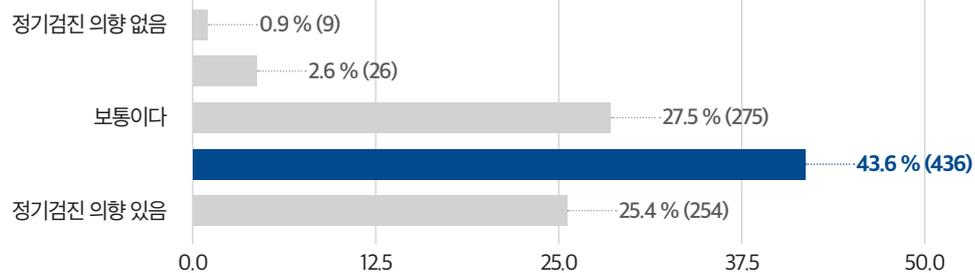
Q12. '무증상 심장병'과 관련한 제시된 정보 중, 공감이 되거나 외닿았던 정보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세요.

객관식 중복 | 총 응답 수 1,00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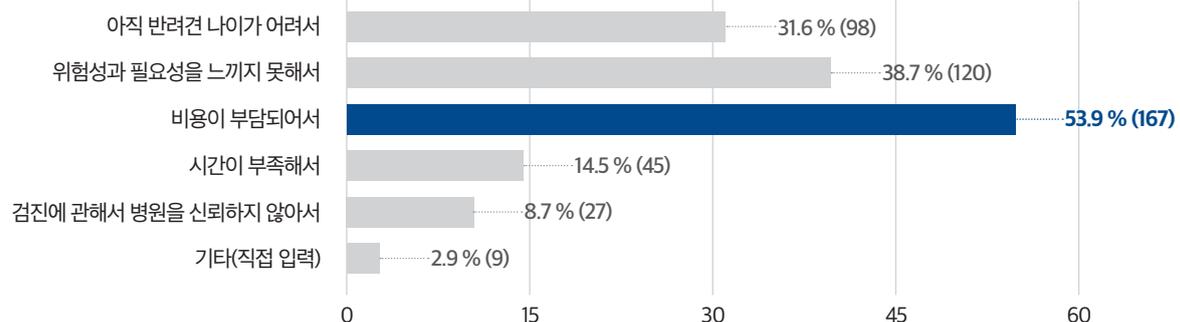
Q13. 귀하께서는 향후에 반려견 심장 관련 정기검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평가형 5점 | 총 응답 수 1,000 건



Q14. 귀하께서는 향후 반려견 심장과 관련하여 정기검진을 받을 의향이 없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객관식 중복 | 총 응답 수 310 건



두근두근 심장병 토크콘서트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11월 11일 심장의 날에 한국수의심장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주관, 베링거인겔하임의 베티메딘, 벨릭서, 하이큐, 네오딘 후원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한 웨비나인 '두근두근 TALK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브 '설채현의 독설TV'를 통해 생방송된 토크콘서트는 사전 신청자 1,000명을 넘기고 최대 동시 접속자 532명, 누적 시청자가 7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설채현 수의사가 진행을 맡은 이날 방송에서 수의심장협회 이사인 박종인 수의사가 심장병에 관한 기초 설명을, 김성수 VIP동물의료센터 심장센터 원장은 무증상 심장병에 관한 개념과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한국수의영양학회 이사인 조우재 수의사는 심장병 환자의 영양학적 관리에 관해 강의를 10-15분간 진행했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에는 행사 전에 받은 사전 질문들을 정리하고, 라이브로 궁금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던 보호자들은 사전 질문만 해도 670여개였고, 채팅창을 읽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

Q. 심장병 원인, 증상 및 예후

Q. 심장병 예방 방법 (식이 관리, 생활 습관 포함)

Q. 심장병 호발 견종 / 모종 / 나이

Q. 심장병에 걸렸을 경우 관리 방법

Q. 심장 검진이 중요한 이유, 검진 방법

Q. 심장약 부작용 / 복용방법

Q. 심장에 좋은 영양제

Q. 합병증

그 외의 질문

Q. 심장 응급상황일 때의 처치 방법

Q. 심장병 외과수술

Q. 호흡수 체크 방법

Q. 심장병 말기 관리 법

심장병의 진행단계

진행 단계	심장병 진행 단계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E단계
심부전	X	✓	✓	✓	✓
환류상	X	X	X	✓	✓

ACVIM 출제어(검사 권장 사항)

- A단계** 심장병에 걸리는 품종을 포함한 소형 견종은 정기적인 심장 청진을 권장합니다.
- B단계** 심초음파를 포함한 심장 검진을 6-12개월 간격으로 해주세요.
- C단계** 수위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 및 식이 관리유무를 제한 및 충분한 단백질을 시작하세요.
- D단계** 수위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 및 식이 관리유무를 제한 및 충분한 단백질을 시작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시작하세요.

사전 질문

Key word : 유해 음식

- Q. 반려견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줘도 되나요?(버onica, 사과, 달걀 등) 된다면 어느 정도?
- Q. 이 사료 짜지 않나요?
- Q. 과일, 오이, 고구마, 감자 등 사람이 먹는 음식을 아이에게 줘도 되는지?
- Q. 장아찌를 무척 좋아하는데 과연 풍은견지 먹어도 되는 건지?
- Q. 간식은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적당인가요?
- Q. 심질환환에 고기를 갈아주면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웹이나 1시간, 라이브 1시간 30분 총 2시간 30분 넘는 시간 동안 시청지만 400명 후반을 유지했고, 보호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으며 “웹이나 진행되는 내내 울면서 봤어요”, “최고로 도움이 되었던 강의”였다며 보호자분들께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심장병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여전히 보호자 눈높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사가 심장병에 관한 인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를 진행했던 박종인 원장님께 의뢰한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두근두근 하트체크 캠페인 3분 공익광고

원주 누리 박종인 원장님 인터뷰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박종인 수의사

원주 누리 종합 동물병원
수의학박사
한국수의심장협회 상임이사

안녕하세요. 원주 누리 종합 동물병원 박종인 수의사입니다.

이번 두근두근 하트 체크 캠페인을 통해 진료실에서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지 못한 진짜 궁금한 점이 무엇이며 또, 심장병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보호자분들에게는 심장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무증상 심장병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전질문과라이브방송중보호자분들이질문해주시는내용이“어떻게치료하면되는지?”“약의부작용은어떤지?”를궁금해하는비중보다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궁금해한다는 것이 신선했고 그만큼 반려동물도 심장병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듯하여 보람도 느꼈습니다.

심장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보호자님들께서 “심장약을 먹이면 신장이 망가진단데요” “심장약 먹이면 평생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아이가 더 힘들어해서 심장약을 안 먹이거나 최대한 늦게 먹이라던데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어디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거나 아니면 인터넷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말을 보고 진료 보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고 결론지어 버렸고 ‘치료에 의지가 없거나 비용 문제로 자신을 위안하기 위한 말을 한다’라고 단정 지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병 반려동물 보호자님을 만나면 “이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검진 못하시겠네”, “이 아버님 표정이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보이시는데 괜히 심장병 얘기하면 시간만 길어지겠는걸”이라는 잘못된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심장 진료 케이스가 늘어나며 심장병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다양한 보호자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직장을 사직하신 보호자, 심장병 치료를 반대하는 남편을 이해 시키고 다독거리려 심장약을 매달 타가시는 어머니, 반려견의 기침을 줄이기 위해 십수 년 집안에서 피우던 담배를 밖에서만 피우시고 들어오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매달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같이 늙어가는 반려동물의 약을 타가시는 노부부, 자신이 입고 먹을 돈이 정말 없는 취약계층 보호자, 진정으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걱정하다 보니 인터넷에 쓰여있는 출처도 모르는 글을 보고 정말 심장약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고 믿고 걱정하는 보호자.....

하루는 심장 치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가는 보호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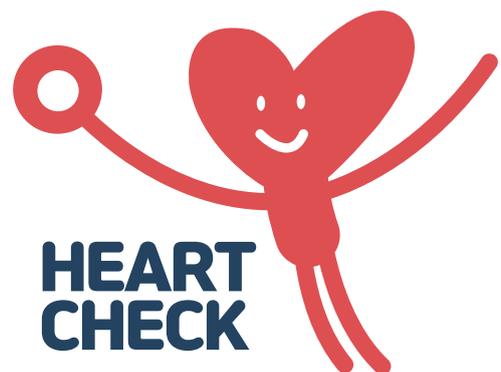
“원장님 우리 아이 때문에 4년을 휴가도 한번 못 가고 가족모임 한번 못 갔는데... 그래도 난 아이와 함께 있는게 더 좋아요. 원장님 우리 아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의사라고 보호자 앞에서 자만했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나며 보호자에 대해 앞서 오해하고 지레짐작으로 결론지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동물 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은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가족을 치료해 주고 싶어 오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보호자님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비용이 문제인 보호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심장병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반려동물이 어디가 불편한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보호자님이 무엇 때문에 동물 병원에 오셨을까? 생각하고 단순히 확인만을 위해 오신 것 인지, 아니면 치료를 원하셔서 오신 것 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혈압을 관리하듯 앞으로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병임을 설명드리고 예상되는 비용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사전에 충분히 생각 시게 해서 진료를 시작할지 결정하게 해드립니다.

심장검진 이후 진단명과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또 그 기전과 병이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임상증상을 미리 인지시켜드리고 검진 시 매번 드는 비용과 심장약의 가격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검사해야 되는 비용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럼 이걸 먹어도 되나요?”, “심장약 먹으면 신장 나빠진단데?”, “그럼 산책은요?” 등의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되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뒤에서 기다리시는 보호자님은 짜증을 내게 되는 일도 간혹 생깁니다. “뭐 이렇게 비싸요?”, “사람보다 더 비싸네”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료를 본 보호자님들은 재진율이 매우 높고 심장약도 거르지 않고 매번 타가십니다. 심장 진료 보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일을 겪으시지 않으시나요?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심장병은 줄어들지 않고 노령견이 늘수록 더욱 늘어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선배 수의사님들께서 심장 사상충에 대해 몰랐던 보호자를 교육해 모든 반려인들이 심장 사상충을 당연히 예방해야 된다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 임상을 하는 일선의 수의사들이 심장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자교육을 하고 그 교육내용이 퍼져나가고, 또 두근두근 하트 체크 캠페인 같은 행사를 통해 심장병에 대한 오해 없는 진실을 전달해서 심장병의 조기검진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체크 캠페인의 캐릭터 '하티'



2021하트박스를 신청하세요!

2021 하트박스 구성

1. **구성 하나**: 보호자 교육용 2022 탁상 캘린더
2. **구성 둘**: 보호자용 심장병 설명서 50매와 거치대
3. **구성 셋**: 심장병 설명용 테어 시트
4. **구성 넷**: 보호자 대상 심장병/심장검진 콘텐츠 동영상
(기존 동영상(성우 더빙 들어간 것) / 1분 동영상 / 풀영상 / 범퍼 영상 다운로드 링크)



▶ QR code 찍고 무료로 하트박스를 신청하세요!

무료로 하트박스를 받는 방법 2가지

- 베링거인겔하임 영업팀에게 문의하기
- 좌측의 QR code를 찍고 신청서에 직접 수령처를 입력하기



베링거인겔하임 BI-BLE +



BI-BLE 뉴스피드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BI-BLE



Boehringer
Ingelheim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 5가,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대표전화: 1811-7227

“BI-BLE”은 수의사를 위한 학술 정보지입니다.